전쟁에도 트럼프 타코 행보, 불안 완화에 증시 일단 환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중동 분쟁 완화 기대에 유가 급락, 증시 상승

- 미 증시는 DOW +1.38%, S&P500 +1.15%, NASDAQ +1.38% 전 섹터 상승. 임의소비재, 소재 등 유가 민감 업종 중심 강세
- 주말간 48 시간 최후통첩 등 지정학 불안 이어짐. 그러나 최후통첩 종료를 약 12 시간 앞둔 장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가 진행중이며, 이란 발전소·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5 일간 유예한다는 입장 발표
- WTI, 브렌트유 모두 10%대 급락 및 국채금리 하락 10Y 4.346%(-4.6bp) 2Y 3.856%(-3.8bp)
- 달러인덱스 98.9 으로 하락, NDF 환율 1,486.7 원으로 하락

협상무드로 급진전? 아직은 불확실한 전개 방향

- 트럼프의 생산적 대화 주장에 이란 측은 협상 진행 사실을 전면 부인. 지난 24 시간동안 미국과 어떠한 협상 및 대화도 없었다는 입장
-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 전화통화로 미·이스라엘 군사적 성과를 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. 한편 이란의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타격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밝혀 즉각적 공격 연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트럼프 입장과 괴리
- 글로벌 IB 는 경계감을 유지하는 입장. 모건스탠리는 헤드라인 장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, 증시가 지속 반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. 에버코어 ISI 는 트럼프의 의도가 종전인지 시간 벌기인지 불투명하다 코멘트

여전한 인플레 경계,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

- 굴스비 총재는 이번 전쟁이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며,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전개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. 현재 인플레 대응이 고용보다 우선순위라고 첨언
- 애틀랜타연은 GDPNow 1Q 전망치 2.3→2.0% 하향. 1 월 건설지출 MoM -0.3%, 전월비 부진·컨센 하회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APL	애플	+1.4%	주요 IB들의 낙관적 전망에 주가 강세. 모건스탠리는 향후 12개월 내 아이폰을 교체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 비율이 2%YoY 상승한 37%를 기록했으며, 중국 내 교체율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분석. BofA는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출하량을 삼성전자 모델을 크게 상회하는 최대 2,000만 대 수준으로 추정
MU	마이크론	-4.4%	지난주 실적발표, 폭발적 수요에 따른 대규모 CAPEX 계획에 시장 우려 가중되며 주가 속락. 또한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라팹 프로젝트 발표에서 마이크론, TSMC, 삼성전자 등 기존 공급사들에 더 빠른 확장을 요구했으나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, 자체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에 주가 하방 압력
PLTR	팔란티어	+6.7%	미 국방부가 메이븐 AI 시스템을 무기 타격용 핵심 군사 AI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주가 강세. 정부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발효 예정이며, 전군에서의 시스템 사용 및 안정적 장기 예산 확보 가능해질 전망. 한편 전일 모건스탠리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투자의견 '비중 유지' 및 목표주가 $205 유지 발표
UAL	유나이티드항공	+4.5%	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국제 유가 하락세 보이며, 연료비 부담 및 여행 수요 위축 우려가 컸던 항공주 강세. 노르웨이안크루즈(+6.2%), 로얄캐리비안(+5.8%) 등 크루즈주 및 부킹홀딩스(+1.2%), 하얏트(+2.4%) 등 여행주 동반 강세